

# “국민에 새로운 선택지 보여야”

### 이낙연 전 총리, 현 정치상황에 “윤석열·이재명 둘 중 고르라는 문제 이대로 가면 총선까지 같은 문제 받아야... 국민 30%는 이 시험에 답 없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는 5일 현 정치 상황을 답안이 두개 뿐인 시험지에 비유하며 국민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당 창당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중당”의 여러 어려움과 문제가 그것으로 이야기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허물이 연달아 나오는데 뭉개고 지나가는 거 같은 게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드릴 것”이라며 “특히 뉴스에 많이 나오는 막말, 이걸 보면 변명하기 어려운 것이고 국민은 속상한 것이다. 연달아 나오고 있어 국민을 화나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당 창당이나 탈당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고 지적하자 “23년 전 정치 시작할 때부터 저는 하나의 원칙을 갖고 활동했다. 개인보다 당, 당보다 국가가 먼저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말한대로 김대중 시대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저는 그때 민주당을 기억한다.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민주당 내 민주주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민주당은 상대당보다 도덕적이고 민주적이고 유능했다. 지금도 그런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그렇지 않다고

“내가 귀국하고 5일이 넘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를 일주일 한 번 꼴로 비판하고 민주당 말은 안 했다”며 “윤석열 정부 비판만 하면 뉴스가 안 나가더라. 민주당에 대해 자세한 것은 국민을 화나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내 혁신을 지처한 비명계 모임 원칙과상식은 이날 중순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고, 이 전 대표는 “배가 되면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묻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늦지 않게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말하는 게 도리다 해서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말하는 게 도리다 해서 얘기했다”고 전했다.

최근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는 만남이 있었던 것에 대해선 “우선 현역 의원들은 거의 안 만나고 있다. 만나

면 부담 될 수 있고, 만났다고 하면 당내 분위기에 이익이 아니니까. 그분들 손에 받지 않게 피하고, 그분들도 저에게 부담 주기 싫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는 자주 만난 것은 아니고 김부겸 전 총리와는 두 차례 만났다. 한 번은 문재인 정부 1기 친목모임에서, 8명이 나와서 깊은 이야기는 어려웠고, 한번은 4명이 2+2로 점심을 먹었는데 그 때 두 명이 자리를 비워줘서 10분 남짓 이야기했다”며 “당내 상황 많이 걱정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야기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정세균 전 총리와는 단들이 식사한 적 있는데 많이 속상해 했다. 이야기가 많이 진척되기 어려울 정도로 속상해 하더라”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얼굴로 총선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선거를 치르는 것은 당이고, 출마자다. 무엇이 승리를 위한 것인가는 본인들이 잘 알 것이다. 다만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에 관해 묻자 “민주당에 약제는 막말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뉴스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은 지난 4일 김제지역 청년창업가들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 청년창업기업 현황·애로사항 청취

### 나인권 도의회 농산경위위원장, 김제 창업가 초청 현장 간담회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김제지역 청년창업가들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나인권 도의원, 전라북도 및 김제시 관계 공무원, 청년창업가 등 30여 명이 청년창업기업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등을 모색했다.

나인권 의원은 “30세 미만 청년 창업가 절반이 1~2년 사이에 문을 닫고, 7년 생존율은 불과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청년창업 생존율을 담보하기 위한 특단의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창업초기뿐만 아니라 3~5년 사이,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ey)시기에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창업생애주기에 따

른 선택적 집중지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창업가들은 ‘창업기업 지원예산 감소로 기업 성장 필수요건인 신규채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며 관련 지원 확대와 ‘해외진출을 위한 판로개척 및 컨설팅’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전라북도 창업지원과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의 기업생명주기통계에 따르면 전라북도 창업기업의 5년 후 폐업률은 65.2%로 국내 창업기업들의 같은 기간 폐업률 평균보다 1.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훈 기자

## ‘비명계’ 원내외, 세 규합 가시화되나

# 10일 대규모 토론회 동참

### 민주주의실천행동, 원칙과상식 행사 참석 예고

친이낙연계 시민모임 ‘민주주의실천행동’(실천행동)은 오는 10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을 자처한 비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이 마련한 대규모 토론회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낙연 전 대표의 참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명계 중심으로 원내외 세 규합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실천행동은 5일 원칙과상식이 이날 10일 오후 2시 예정된 ‘국민과 함께 토크쇼’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원내의 비명계 모임이 한시 한곳에 자리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까지 참석하게 되면, 현 이재명 체제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한데 모아지는 셈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

‘국민과 함께 토크쇼’ 원칙과상식이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당 혁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인사들과 대규모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며 예

고했던 행사다. 이원욱 의원은 당시 “이른바 비명계라고 불리는 당원들, 비주류 당원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게 여태 존재하지 않았고 어느 날 갑자기 페이스북에서 ‘나 모여라’라고 한다고 모이지 않을 거 같아서 일차적으로 연락해서 한 번 모임을 하고, 그런 플랫폼도 만들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보수, 진보 따지기 전에 원칙과상식부터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4명이라 적다는 분도 있는데 비틀즈도 4명으로 세상을 바꿨다. 무슨 노래를 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낙연 전 대표의 참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명계 중심으로 원내외 세 규합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이날 4일 김종민 의원과 이원욱 의

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며 “원칙과상식을 함께 하고 있는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용천 4인 의원은 이 길에 함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커뮤니티 내 뜨거운 편이다. 이날 10일 모임에 참석하겠다는 회원들, 신당 창당을 기다리며 민주당 탈당을 기다리고 있다는 목소리, 이미 탈당했다는 사연 등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영찬 의원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 참석 가능성에 대해 “어느 분이 움직이게 되면 그게 아니다. 하지만 올 수 있는 분은 다 초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내의 비명계 모임이 한시 한곳에 자리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까지 참석하게 되면, 현 이재명 체제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한데 모아지는 셈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

## “스마트공장, 농식품 부문 성과 저조”

### 도의회 예결특위, 도 미래산업국 등 대상 예산 심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의원, 진안)는 5일 2024년 전라북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영계획안 및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4일차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는 미래산업국, 농생명축산식품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인제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경찰위원회 등 7개 국원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벌였고, 6일부터는 도 교육청 대상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술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미래산업국 소관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내용에 대해 묻고, 스마트공장의 농식품 부문에 대한 성과가 저조한 것을 지적하고, 철저한 성과분석과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원 주거비 지원과 관련하여 도내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미래산업국 소관 사업과 관련하여 전

북의 주력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대다수 사업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성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미래산업국 소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추진단 현황과 행사 계획에 대해 묻고, 정밀하고 세밀한 추진단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원 주거비 지원과 관련하여 타 기관 연구원들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확인 필요와 연구원들이 연구를 마친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착을 위해 정책을 펼쳐주길 당부했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모 방법에 대해 묻고, 공모 사업 추진 시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당부하고,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가 많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인건비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 군산시의회, 본회의 열고 제3회 추경 예산 상정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6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14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2023년도 제3회 추경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이며, 제2회 추경 대비 321억3,700만원(1.8%)이 증액된 1조7,538억2,500만원의 예산이 상정됐다.

시의회는 이번 3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시가 편성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예정이며, 2023년도 최종 예산안을 오는 11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5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윤신애·한경봉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 김제시 동참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어,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처리기준과 시설 및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문선=김판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완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주거대책 마련

### 민주 안호영 의원, 권요안·윤수봉 도의원과 간담회… “보증금 일부 회수 법안 통과 노력”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지난 4일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윤수봉 의원(완주1·더불어민주당)과 완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완주 전세사기 피해 대책마련 간담회.

전북도 정길용 주거복지팀장은 “완주군 삼례 A아파트 임대차계약이 신고된 세대는 119곳이고, 이 중 99세대가 계약 만료됐다”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거지원, 금융지원, 이사회 지원을 추진 중이며, 비상대책위원회·완주군과 협의해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위해 현장 접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현행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자 구제하는데 미미하기 때문에 신속히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전세사기 보증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완주 전세사기 피해자

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전북도와 완주군은 협조해 모든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요안·윤수봉 도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완주 전세사기 피해자

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전북도와 완주군은 협조해 모든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호영 의원은 “현행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자 구제하는데 미미하기 때문에 신속히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전세사기 보증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 헌신적인 봉사, 사회발전 공로 인정

### 오수환 순창군의원, 서울평화문화대상 수상



순창군의회 오수환 행정복지위원장(위원장)이 최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 시상식에서 ‘행정복지위원장’ 부문에서 수상했다.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 시상식”은 사회 각 분야에서 빛나는 업적을 이룬 사회 여러 방면에 기여한 선도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서울평화문화대상 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일보, 도민일보 등이 주관했다.

오수환 위원장은 깊은 사명감과 투철한 책임감으로 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탁월한 역량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행정·농업분야 등 5개의 조례 대표발의, 2건의 건의문 발표, 3건의 5분발언, 현장특위를 통한 중점사업 점검 및 대안 제시 등 수준 높은 의정활동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면적, 인구수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장수당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이장처우 개선’을 위한 훈민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이장수당 현실화 방안을 건의했다.

제28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시는, 군의 열악한 재정에서부터 자체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 세수 확보 대책 마련과 새로운 행정변화와 배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작은학교 살리기 교육정책 연구회’를 결성해 작은학교 살리기를 통한 인구 유입의 효과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 현장 방문, 선진지 견학, 2회에 걸친 간담회와 대토론회를 이끌면서 최종보고서 도출을 앞두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